

물김 가격 폭락... 줄줄이 폐기처분

생산량 늘며 한달새 83% 하락 위판가 120kg 포대당 4~6만원 해남군 가격 안정화 대책 분주

해남군이 물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지금까지 3만 301t, 금액은 493억여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7%와 38%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물김 생산량 증가로 위판가격이 포대당(120kg) 4만~6만원 선으로 전월대비 83.4%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600여t의 물김이 폐기된 상황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화산면 구성리 김 위판장을 방문, 물김 위판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양식 어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방문에서는 물김 가격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계 기관 간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군은 앞서 지난 28일 군과 군수협, 김생산어민 연합회와 어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김 가격 안정화 대책 간담회'도 개최했다.

명 군수와 박병찬 수산업협동조합장, 김창화 김생산어민연합회장 및 관계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물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폐기되는 물김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민들의 실정에 맞는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명현관(가운데) 해남군수가 화산면 구성리 김 위판장을 방문, 물김 위판 상황을 점검하고 양식 어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해남군 제공>

이 자리에서는 올해 전국적인 김 생산량 증가로 폐기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물김 출하조절 사업의 지원 확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 강화, 생산량 조절 등 어민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김 연관 산업의 협력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물김 출하조절 사업 확대를 통한 물김 가격 안정을 위해 수협,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기적인 김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한 정부 건의와 함께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군남·묘량면에 '유학마을' 7동 조성

4가구 15명 이달부터 입주

영광군은 군남면과 묘량면에 '유학마을'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학마을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청소년·중장년 인구를 유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 사업 일환이다.

군은 영광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주 공간 마련, 유학생 모집 관리, 유학프로그램 운영 등 유학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은 군남면(4동), 묘량면(3동)에 가족과 함께 학생들이 유학할 수 있는 체류형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유학마을 입주대상자는 전남 이외 지역 초·중학



영광 유학마을.

교 학생으로 유학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는 교육청을 통해 모집 선정된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 4가구 15명으로 올해 이달부터 입주 예정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w@

목포시 여행사 홍보마케팅 300만원 긴급 지원

목포시는 관광업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여행업체이다. 단,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여행업체 중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개설, SNS 콘텐츠 제작 등)와 오프라인 홍보(신문 광고, 현수막, 전단지 등), 그리고 홍보 상품 제작 및 판매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다.

신청 대상 여행업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홍보마케팅 활동에 대해 증빙자료와 함께 목포시 관광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합성을 검토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마감은 28일까지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광업계가 직면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많은 여행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압해 송공~증도 병풍도 다섯번째 공영여객선 운항

167t 규모 차도선형 여객선 투입

신안군이 오는 12일부터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잇는 항로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여객선으로 취항한다.

신안군의 공영여객선 취항은 지난 2019년 '증도-자은'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압해-송공항로는 압해 송공항을 출항해 당사도, 소약도, 매화도, 대기점을 경유해 증도 병풍도를 1일 왕복 4회 운행하는 항로로, 그동안 민간선사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뿐 아니라 12사도 순례자의 섬으로 알려진 증도 병풍도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이에 신안군은 군민의 불편 개선과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 향상, 신안군의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공익의 서비스를 위해 항로를 인수했다.

항로에 투입되는 '슬로시티5호'는 여객정원 184명, 승용차량 17대의 수용능력을 갖춘 167톤급의 차도선형 여객선이다.

주민 차량 운임도 2000원으로, 민간 선사 운영 1만500원에 비해 저렴해진다.

신안군은 병풍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12사도 방문, 맨드라미 축제 기간 등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여객선 운항시간



신안군 공영여객선.

에 맞게 육상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운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미 신안군은 버스 완전공영제가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됐다"면

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상교통도 완전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목표액 달성

지난해 8억7400만원 모금...68%↑

완도군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모금액인 5억 5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8억 7400만원, 기부 건수는 8131건이다. 2023년 대비 각 68%, 97% 늘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현황을 보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90%를 차지했다.

달래품 순위는 활 전복, 김 세트, 완도사랑상품권 순이었다.

완도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미취학 아동 육아 여성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이용 지원'과 도서 지역 취약계층 이불 배달을 위한 '청산면 마을 공동 배달방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을 선택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남도국악원 청소년·일반인 국악문화학교 운영

11~15일 15명 선착순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이 국악의 생활화 및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악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총 21회 운영된다.

남도국악원 단원들이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사물놀이,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등 7과목 강

사로 나뉜다.

과목별로 15명(아쟁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15일까지다.

수강료는 청소년 5만원, 일반인 10만원이며 가족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정경 남도국악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 예술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